



그림을 그리듯 음악을 그리는 뮤지션

피아니스트

조수현

2008년 네덜란드 쉐런지 레이블에서 발표된 한국 연주자의 앨범이 뒤늦게 소개됐다. 이름은 조수현(Soo Cho). 그동안 국내에는 알려지지 않은 연주자였다. 인터넷에서 찾은 그녀에 대한 정보는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했고 네덜란드로 유학을 떠났다는 간단한 이력뿐이었다. 지난 3월, 오랜만에 한국을 찾았다는 그녀를 만났다.

“할 줄 아는 게 피아노 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에서 피아노 치는 아르바이트나 팝 밴드 활동을 하기도 했죠. 어느 날 일하는 곳에서 음악을 듣게 되었는데(듀크 조던 트리오 류의 음악) 신선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재즈를 더 들어보고 싶다고 했더니 찰리 파커를 가져다 주셔서...” 이후 최세진 선생님을 알게 되었어요. 재즈 클럽에서 몇 번 연주도 하고, 재즈를 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됐어요. 당시엔 재즈를 하나도 몰랐지만 선생님이 시켜서 할 수 있었던 거죠.” 조수현은 재즈를 알게 되면서 처음으로 “내 인생 처음으로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어려서부터 클래식을 배워왔던 만큼 집안의 반대도 거셌다. 그녀는 꼭 가야겠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말로 당시의 절박함을 설명했다. “5년간 공부하고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벌써 9년이 넘었네요.”

그녀가 유학을 떠났던 2001년만 해도 네덜란드로 유학을 떠나는 재즈 연주자는 많지 않았다. 더욱이 낯선 곳에서 새로 시작한 음악은 쉽지 않았다. “1학년 진급시험에 실패하고 방황하면서 폐배자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선생님 한분은 저에게 나이도 있으니 딱 걸 찾아보라고 할 정도였어요. 마지막으로는 생각이, 내가 죽을 만큼, 아니 죽을힘을 다해 열심히 해본 적이 있을까? 나는 재능이 없는 것도 알고 있고 열심히 안 할 것도 아닌데, 만약 9시간을 연습해도 안 되면 두 배를 하면 되지 않을까? 했어요. 거기서 포기하기엔 제 인생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딱 몇 달만 해보자고 했죠.” 얼마 뒤 음악을 포기하라고까지 했던 교수들은 그녀의 변화에 놀라움을 감치 못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일 이후 책을 읽었다고 했다. “저보다 스탠더드 잘 연주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저는 그들보다 잘 할 자신도 없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자는 생각이 들어서 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꾸준히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도 자신의 것을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에서는 저 같은 피아니스트들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그녀의 말에는 다양함을 인정해주는 유럽의 사교와도 맞닿아 있다.

그녀의 유니크함이 곡을 만드는 방식일까, 아니면 연주일까. 직접 물었다. “제가 곡을 쓰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연주하는가입니다. 팀 전체 사운드도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썬셋선은 거의 하지 않아요. 첫 앨범에서 드럼을 친 연주자외도 5년을 했는데 그 친구와 저는 음악적인 팀워크가 잘 맞아요. 연주를 잘하는 드러머를 뽑으려면 그보다 훨씬 더 많겠지만, 저에겐 잘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녀는 곡에 대한 상상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리고 연주를 그림에 비유했다. “저는 드러머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화가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루브 리듬만이 아니라 음악에 색깔을 넣어줄 수 있는 음악을 요구하고, 그래서 드러머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세상에 드러머와 뮤지션이 있다면, 저는 뮤지션이 필요한 거죠. 그것도 제가 원하는 색깔을 같이 나타내줄 수 있는 음악가가 필요합니다.”

그녀의 음악이 ‘색깔’을 가질 수 있는 이유, 그건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부터 나오는 듯 했다. 스스로 드러내고 말하는 연주자, 그리고 자신에 대해 끊임없는 고민하는 연주자. “기대” 이렇게 말한다. “제 음악은 그냥 저인 거예요. 솔로를 하면 별 다른. 그 음악은 그 사람이 가진 거예요.” 그렇게 그녀는 자신만의 음악을 그려나가고 있었다. 